19세기 후반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기 계 형**

1. 들어가는 글

1991년 소련해체 이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출현한 새로운 국민국가들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과 함께 카리모프정부는 무엇 때문에 수도(Capital City) 타슈켄트(Ташкент)와 도시들 곳곳에 새로운 '공적 기억'과 새로운 '기념비'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가? 정부는 무엇 때문에 거리의 이름에서 러시아어 지명들을 뜯어냈으며, 티무르와 같은 역사적 영웅들을 불러내고 우즈베크(Узбек) 민족의 기념비들을 건립했는가?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보통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활로 해석되곤 한다. 본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투영해 본다면, 수도 타슈켄트가 러시아(소련)제국의 공적 기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한 권력의 의식적인 행위라고 덧붙일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정부가 들어서는 수도는 한 국가의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느 도시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더군다나 도시기호학의 개념을 빌린다면, 일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존재하는 수도는 한낱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국가를 나타내기도 하며, 이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일종의 '기호'로 기능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건축물들, 도시의 의식들(rituals), 거리의 이름들 등 수천가지 과거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과거 역사의 텍스트를 새롭게 만드는 기호학적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1] 그러므로 수도의 이러한 다층적, 복합

---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1) Ю. Лотман(1984), 30-44; 유리 로트만(1996), 44-111.

적 측면을 고려하면, 소련해체 이후 카리모프정부가 수도에서 새롭게 우즈베크 민족의 공간을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1990년대에 타슈켄트 공간에 드리워진 러시아(소련) 제국의 내러티브를 탈각하려 했던 카리모프정부의 조치는 1865년 타슈켄트를 병합한 후 도시공간에 제국을 구축하고자 했던 러시아 짜르정부의 조치와 겹치면서 공간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보여준다. 즉, 전자는 소련으로부터의 자발적 '독립'이며, 후자는 러시아제국으로의 강제적 '병합'이라는 매우 상반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 또한 다르지만, 수도(도시)가 권력의 재현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제국'과 '식민도시'의 성격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련의 해체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국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제국의 역사적 유산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타슈켄트에는 러시아제국과 소련시대에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들, 직선의 거리들, 공공의 광장과 정원들, 거대한 기념비 등이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 이미 사라진 과거의 역사적 공간인 제국이 제국이후의 공간에서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제국은 단순히 러시아/비러시아 지배관계 또는 러시아/소비에트제국이라는 정치체가 아니라,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소련시대, 나아가 포스트소비에트시대의 역사 전반을 관통하는 기억과 인식의 총체로서의 제국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은 그러한 유산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까지는 역사가들이 도시공간 그 자체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학문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과 연결된 윤리적 주제였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로 식민지 지배층과 토착민사회의 배제와 분리라는 설명방식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제국 중심(core)과 식민지 변두리(periphery) 사이의 엄격한 분리, 식민지인의 토착민에 대한 배제 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2] 최근 20여년 간 영미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연구[3]와 '신제국사(New Imperial History)' 연구의 결과, 식민지 본국이 일방적으로 토착민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역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며,

2) Stephen Howe(ed.)(2010), Introduction; Anthony G. Hopkins(1999), 203-204.

3) Zeyn Celik(1997); Stephen Legg(2007); Robert Home(1997); 조앤 샤프(2011).

양자 관계에서 배제와 분리의 기제뿐만 아니라, 협력과 수용의 측면, 그리고 식민인과 토착민, 토착민과 토착민 간의 관계들 등 다양한 모습이 해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담론 및 이론연구, 제국팽창과 통치의 이데올로기, 피식민지 공간의 형태 분석, 제국 내부와 외부의 문화적 상호관계, 피식민지인의 협력/의존/저항의 세부 측면들, 제국팽창 과정에서의 다양한 폭력, 모더니티와 전통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4] 아울러, 러시아에서도 잡지 『제국으로부터(Ab Imperio)』를 중심으로 '신제국사'의 기치를 내건 일단의 연구자들이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면모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러시아제국이 소수민족들과 맺었던 관계들, 러시아제국의 이념적, 문화적, 제도적 유산, 소수민족들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태도 등 많은 연구 주제들이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5]

본 논문의 1차적 관심은 19세기 후반 타슈켄트라는 도시공간에 놓여있다. 이른 바 "공간의 귀환(Return of Space)"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논문은 도시공간을 단지 역사적 사건의 배경(backdrop)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역사적 행위와 구조를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자(actor)로 해석하는 '신공간사(New Spatial History)' 연구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6] 아울러, 이 논문은 도시공간의 의미를 성찰하고 탐색하는 연구들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예컨대, 로텐베르크(R. Rotenberg) 등의 연구자들은 도시공간의 의미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세타 로우(Setha Low)는 도시지리학의 거시문화적 경향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7]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이-푸 투안(Yi-Fu Tuan)과 렐프(E. Relph)는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성찰과 함께 실증주의 지리학이 간과한 공간과 장소의 영역을 포착하고 여기에 현상학적, 경험적 관점을 깊게 투영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논문은 특히 식민도시 타슈켄트 공간이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위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러시아제국과 소련시대에 타슈켄트 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한데, 투르케스탄의 이슬람연구에서 탁월한 족적을 남긴 바르톨드(B. B.

4) Stephen Howe(ed.)(2010), 4-20.

5) И. Герасимов, С. Глебов, А. Каплуновский, М. Могилнер и А. Семёнов(Ред)(2004).

6) Nick Baron(2008), 433.

7) Robert Rotenberg and Gary McDonogh(1993), xi.; Setha Low(1996), 25, 383-409.

8) Yi-Fu Tuan(1977); Edward Relph(1976).

Бартольд)의 연구를 비롯해 학술원 산하의 우즈베크역사연구소에서 발간한 타슈켄트 역사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꼽을 수 있다.[9] 영미권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예컨대 멕켄지(David MacKenzie)의 체르냐예프 연구를 비롯해[10],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제프 사하데오(Jeff Sahadeo)의 저작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제프 사하데오의 주된 관심은 도시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그는 짜르제국의 관료, 소비에트관료, 러시아인 노동자, 하층계급 여성뿐만 아니라, 무슬림 귀족,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다양한 입장에 주목한다.[11] 한편, 소련해체 이후의 타슈켄트를 조명하는 아르쫌 코스마르스키의 경우는 타슈켄트의 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긴장을 중재하는 완충지로서 타슈켄트의 공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12] 앞서의 연구들은 타슈켄트의 역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지만, 식민지 도시공간을 둘러싼 권력의 재현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제국의 타슈켄트 병합과 함께 진행된 도시공간의 변형과 그 토대에 놓여있는 식민지 정책의 강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제국이 타슈켄트에서 만들어낸 '근대적' 도시공간이 기실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력의 열망, 두려움, 무지 등을 투사하는 '전근대적' 공간이었으며, 토착민들과의 격리를 본질로 하는 '역설적' 공간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러시아제국에 군사적으로 병합된 식민지로서 타슈켄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민 권력을 실질적으로 구조화한 규정들과 행위들 및 그 관행들, 나아가 식민지 본국의 정치・형벌・제도・사법의 역사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식민지 사회가 발전한 정도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 식민주의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공간구조에 한정해 규명하고 마지막 절에서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지역에 대한 식민정책과 연관해 내용설명을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러시아 식민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우즈베크와 타슈켄트의 역사를

---

9) В. В. Бартольд(1965), 499-502; В. В. Бартольд(1927); Юри Соколов(1965); Х. З. Зияев и Ю. Ф. Буряков(ред.)(1988).

10) David MacKenzie(1974).

11)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러시아정복에서부터 소비에트정권 초기까지 타슈켄트에서 제국의 복잡성(intricacies)을 밝히고, 권력과 저항, 폭력과 유약함, 식민지 사회의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을 탐구"하였다(Jeff Sahadeo 2007: 2).

12) Artyom Kosmarski(2011), 33-50.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즈베크 사회의 구조와 국가 구성의 특징, 러시아의 식민 지배에 대한 투르케스탄인들의 저항과 협력, 러시아 식민 지배가 독립 이후 투르케스탄에 남긴 유산 등 중요한 쟁점들을 검토해야 하지만, 차후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 이러한 쟁점들은 이 글의 직접적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침략과 타슈켄트

1) 투르케스탄으로의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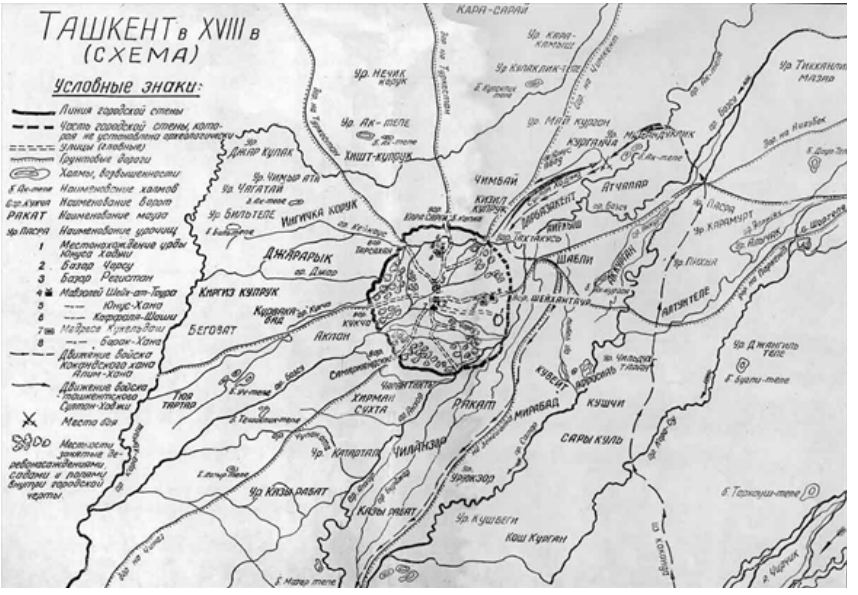
투르케스탄의 초원지대는 오랫동안 다양한 부족,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명들의 흥망성쇠와 권력의 부침이 컸다. '투르케스탄' 지역에서는 일찍이 BC8세기에 박트리아, 호레즘, 파르티야, 소그드 등의 고대국가들이 존재했는가 하면, 이곳은 BC4세기에 이르러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제국에 속했다. 8세기에는 아랍의 칼리파에 의해 병합되기도 했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에 들어갔다가 14세기에는 티무르제국(Монгольская империя Тамерлана)에 속했으며, 16세기에는 그 자리에서 부하라 에미라트(Бухарский эмират)와 히바 칸국(Хивинское ханство)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코칸드 칸국(Кокандское ханство)이 일어났다. 이로써, 19세기 중엽에 투르케스탄에는 크게 부하라 에미라트,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투르케스탄(종종 'Turkistan'(تركستان) 으로도 쓴다)는 문자 그대로 "튀르크인들의 땅"을 의미한다. 그 용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하며, 용례에서 단일한 국가(nation)를 지칭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튀르크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기술하려 했던 페르시아 지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제국은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얻기 위해 원정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 길에, 투르케스탄 시(현재의 카자흐스탄)를 점령했다. 그것은 1864년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을 투르케스탄이라고 명명하는 실수를 하였고, 종국에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투르케스탄'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13)]

---

13)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1901), 투르케스탄 항목.

<지도 1> 18세기 타슈켄트[14)]



바르톨드는 타슈켄트 명칭의 다양한 유래를 보여준다. 타슈켄트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필사본에서는 '타슈켄드'로 쓰여지기도 했으며, 고대 한자기록에 러시아어 'Юйни'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날 타슈켄트가 위치한 지역을 지칭한다. 타슈켄트의 어원은 튀크어로 'таш(돌石)+кенд(마을)'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추정과 아랍어로 'Тажкент', 즉 '타지크(таджик) 인들의 도시'에서 유래한다는 가설도 소개하고 있다.[15)] 여하튼, 타슈켄트는 치르칙 강을 관개수로 하는 오아시스이자 시르 다리야 강의 지류에 위치해 경작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타슈켄트는 투르케스탄의 전형적인 상업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즉, 이곳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서, 부하라 에미라트, 히바 칸국과 같은 인근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리고 러시아와 무역을 수행하였다.

타슈켄트는 오랫동안 '실크로드'로 알려진 동서무역로를 잇는 견고한 정기 기착지였으며, 비록 17-18세기에 약간의 정체를 보이기도 했지만, 카자흐의

14) http://www.orient-tracking.com/Hystory/Tashkent.htm(검색일: 2012.10.20).

15) В. В. Бартольд(1965), 499.

스텝을 경유해 러시아로 가는 북서쪽의 카라반 대상들을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의 역할을 하였다(<지도 1> 참조).[16] <지도 1>은 타슈켄트가 천산산맥(Тянщан, Qianshan)의 줄기를 타고 내려와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르 다리야 강의 지류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실크로드의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타슈켄트의 외곽을 에워싸는 성벽은 8개의 문을 통해 외부세계로 연결되었으며, 타슈켄트의 가운데 위치하는(까맣게 표시된) 시장들은 이곳이 상업의 요충지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1867년에 타슈켄트가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면서 초대 총독인 카우프만(К. П. фон Кауфман)의 명령으로 이곳에 오게 된 화가 베레샤긴(Василий В. Верещагин)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는 수도에서 떠나 오렌부르그를 경유하고 시르 다리야 강의 남동쪽 하류를 따라 타슈켄트에 처음 도착했다. 자신의 외조모가 '카프카스출신의 타타르인'이라고 회고한 그의 글로 미루어볼 때, 동방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는 타슈켄트의 첫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반트(동방무역을 지칭 – 필자)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슈켄트는 나에게 새로운 것은 없었다. 대부분의 진흙집, 종이에 기름을 바른 창문, 점토로 만든 벽, 비가 내려 말의 무릎까지 빠지는 웅덩이들이 그러하다."[17] 중요한 점은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낡고 불편한 전근대적 공간일 수 있지만, 토착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타슈켄트의 거리는 그저 점토로 만든 좁은 집들과 수갈래 골목길이 어지럽게 가로지르는 답답한 그런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

도시의 면적은 30평방 베르스타(1베르스타는 1.067km)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12개의 성문으로 구성되는 두께 2m의 성벽은 도시 주변을 에워싸면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약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 주민들은 도시 오른 쪽을 흐르는 보즈수프(Bozsuv)[18] 강물을 사용하였다. 도시의 최고책임자는 코

16) 원활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문서고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2012년 봄 필자의 타슈켄트 방문기간 동안 논문에 필요한 지도 자료를 얻지 못했고 해상도가 낮아 논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몇몇 지도는 우즈베키스탄 역사연구소 전직 소장인 알리모바(Dilorom Alimova) 교수에게서 얻었다(그 경우에, Alimova, map으로 표시). 지면을 통해 그에게 감사드린다.

17)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검색일: 2012.9.20), 중앙아시아 여행에 대한 진술.

18) 러시아어 표기는 Бозъ-су. 논문 3장 2절에서 신도시 건립과정을 설명할 때는 러시아어로 표기했음.

칸드 칸의 임명을 받았던 시장(bek)인데, 그는 코칸드 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리자(mingbashi)로서 쿡차 다하, 베쇼고흐 다하, 샤이혼토후르 다하, 세브조르 다하를 관리했다. 각각의 다하 밑에는 많은 수의 마할라가 포함되었는데, 각 마할라는 촌장(yuzboshi)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19세기의 문헌정보에 따르면, 각각의 마할라에는 50~150개 가족이 거주하였다. 타슈켄트에서 상업의 중심은 단연 시장(bozor)이었다. 지역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영위했던 시장으로서 에스키 주바(Eski Juva), 초르수(Chorsu), 레기스톤(Registon), 카폰(Kappon) 시장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레기스톤 시장은 토착민들의 주거지에 위치하였는데, 타슈켄트 토착민들의 주거지는 성문이 있는 거리들과 연결되어, 국내외로 무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주는 구조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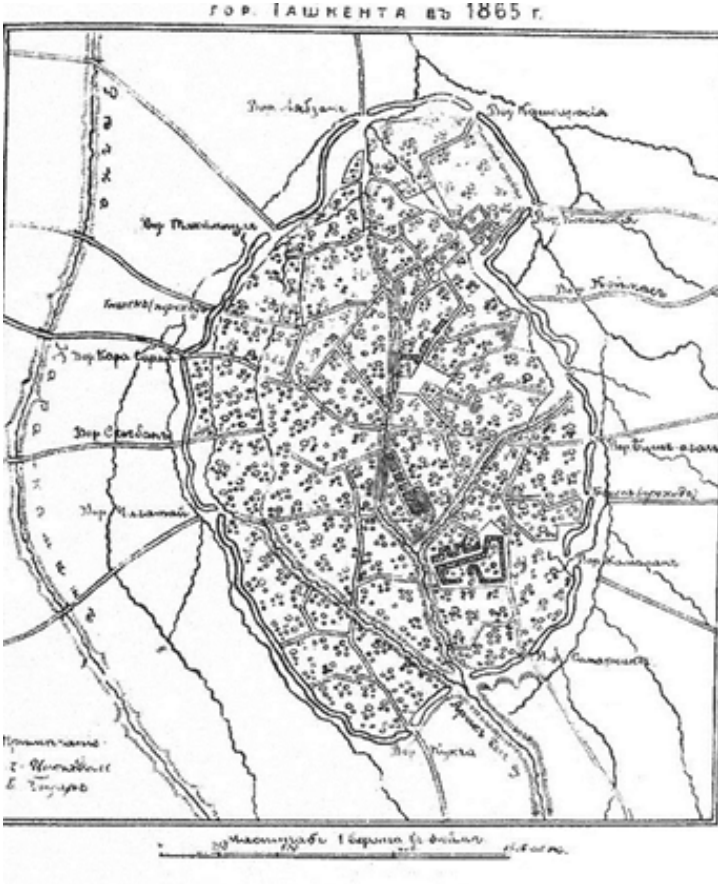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표트르대제가 일찌기 1717년에 히바 원정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제국은 아스트라한에서 오렌부르그까지 스텝남부로 팽창하면서도 투르케스탄 정복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지역으로의 정복과 팽창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1847년-1864년), 2단계(1865-1868), 3단계(1873-1879), 4단계(1880-1885)가 그것이다. 좀 더 부가설명을 해보자면, 1847년에 러시아제국의 군대는 시르 다리야 강의 하구에 '라임스코예(Раимское, 또는 다른 이름으로 Аральское)' 보루를 세웠다. 러시아는 처음에 코칸드 칸국을 공략한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요새를 세웠으나, 더 진전이 되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1853년에 코칸드의 '아크 메체티(Ак-Мечеть)' 요새를 점령하였고, 이 작전을 지휘한 오렌부르그 총독의 이름을 따서 '포르트 페롭스키(Форт Перовский)' 요새를 세웠다. 러시아군대가 크림전쟁에 주력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팽창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859년 알렉산드르 2세는 코간트 칸국 점령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1853년에 점령한 바 있는 코칸드 칸국의 '아크 메체티' 요새를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했다. 토착민들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대는 악수프(Аксув), 피슈테바(Пиштепа), 찰레보르(Чаллево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1864년에는 피슈펙(Пишпек), 토크막(Токмак)을 점령하였으며, 결국 10월에는 체르냐에프(Михаил Григорьевич Черняев)의 지휘 하에 타슈켄트 점령이 시도되었다.[20]

---

19) 괄호 안의 표기는 모두 우즈베크어임. *Тошкент 2200*(2009).

20) Г. А. Хидоятов и В. А. Костецкий(2003), 35.

<지도 2> 1865년 타슈켄트[21)]



위의 그림(<지도 2>)에서 나타나듯이, 1865년 당시의 타슈켄트는 12개의 성문, 두껍고 견고한 성곽, 도시 한 가운데 모여있는 시장들, 동남쪽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코칸드스카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로 구성된 도시는 남쪽을 흐르는 일종의 자연방어물이었던 치르칙 강까지 어울려 마치 벌집처럼 견고하고 응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체르냐예프 군대의 거침없는 공략에 도시는 무너지고 말았다. 1865년 러시아

21)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51. <지도 2>는 18세기의 타슈켄트를 보여주는 <지도 1>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운데 시장이 있고, 오른 쪽 아래에 요새가 보인다.

제국의 타슈켄트 점령은 중앙아시아로의 대대적인 확장을 알리는 전조였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인가?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제국에 주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유럽의 해외 팽창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킨 환상, 즉 "동방의 부"에 대한 신화는 이미 19세기 초에 러시아제국의 외무성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다. 아시아에 대한 환상은 "가난"과 "후진성"이라는 수사로 대체되었으며, 아울러 중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는 "정체된", "변화하지 않는" 동방의 전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22]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앞서와 같은 일련의 군사적 공세를 통해 "투르케스탄"이라 불러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흥미로운 점은 크림전쟁(1854-56년)의 패배에 뒤이어 농노제 폐지(1861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러시아 국내정치의 복잡한 갈등상황은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럽의 서부와 남부 지역으로의 팽창은 좌절되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은 크림전쟁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바쉰(Сергей Н. Абашин)은 크림전쟁 패배 이후 러시아인들이 승리와 영광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포상받고 싶은 욕구, 소진되지 않은 에너지의 출구를 투르케스탄에서 찾았다고 지적한다.[23] 처음에는 신문의 한 면에 이 지역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다면, 곧이어 공식적인 출판물들이 동방(Восток) 팽창의 정당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다시 말해, 투르케스탄 정복은 제국의 남쪽 경계를 방어하는 수단이며, 동방에서 영국의 팽창에 맞서는 대응이라는 견해, 아울러 훨씬 더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의 정복이 "토착민들에게 재앙(бедствие)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종족들에게 구원(спасение)의 유일한 길을 열어준다"는 관념이 식자층 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24] 잇달아 출간된 여러 다양한 서적의 영향을 받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그와 같은 러시아제국의 중심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후진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선진적 유럽국가(즉, 러시아제국)에 의한 정복은 이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식

22) Alexander Morrison(2006), 702; С. Н. Абашин и др.(ред.)(2008), 319.

23) С. Н. Абашин и др.(ред.)(2008), 321-322.

24) Г. Лежан(1867), 198, С. Н. Абашин и др.(ред.)(2008), 319에서 재인용.

으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크림전쟁에서의 참패는 이러한 여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공격적인 무기가 필요했으며, 영국의 인도식민지가 바로 그러한 수단이었고, 그와 같은 길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나 있었다.[25] 한편, 러시아제국이 중앙아시아로 팽창한 원인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미국 남북전쟁(1861-1865) 발발에 따른 섬유산업의 위기에 있었다. 유럽으로의 면화유입이 줄자 원자재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러시아제국에게 새로운 원료시장이 필요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에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제국에 매우 큰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녔고, 그것의 병합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했다.[26]

2) 타슈켄트점령

1864년 10월,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오렌부르그총독부에 포함되어 명목상으로 투르케스탄 오블라스치로 불렀던 투르케스탄으로 휘하에 3천명의 군인을 데리고 진군을 시작했다. 이미 6월에 러시아군은 도시 투르케스탄을 점령했으나, 도시수비대의 반격을 받아 병사 18명을 잃고 침켄트(Чимкент)로 퇴각한 바 있다. 1864년 10월 5일, 러시아군은 침켄트를 점령한 후, 타슈켄트 점령 준비를 시작하였다. 즉, 러시아군은 라임스코예 보루에서부터 페롭스키 요새에 이르는 군사 요새로 시르 다리야 전선을 형성하는 동시에, 알마타의 베르노예 요새를 점령하여 시베리아 전선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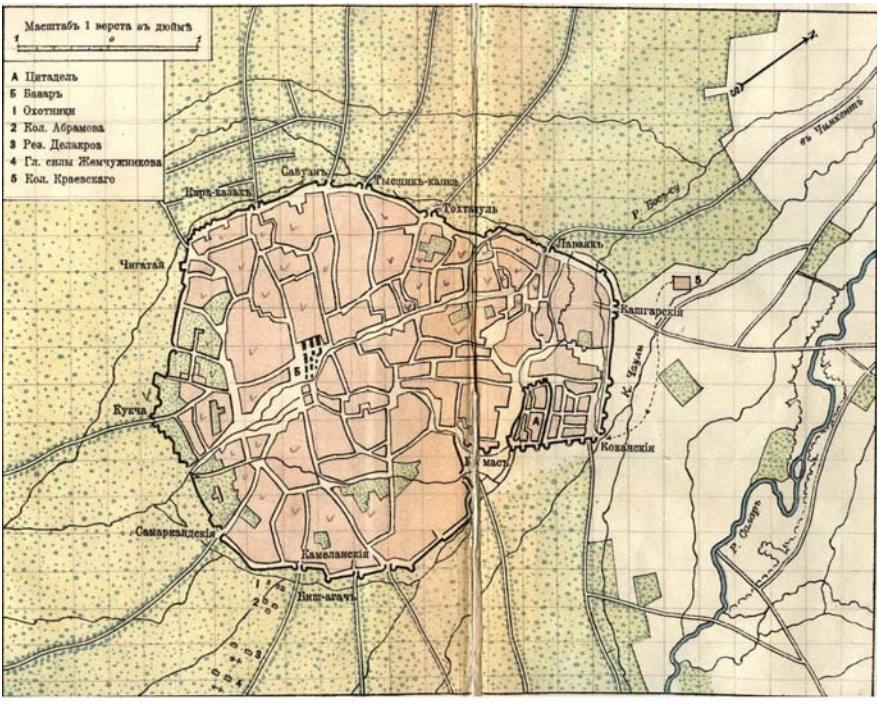
당시에 타슈켄트는 5-7미터 높이와 2미터 두께의 요새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타슈켄트 수비군은 12개의 성문이 있는 견고한 성벽을 계속 철통같이 수비하였다. 또한 막강한 군부대의 진지가 있었기 때문에 코칸드스카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 요새의 명성이 높은데다, 치르칙 강의 좌안에도 요새가 있어 외부의 접근을 막아주었다.

---

25) С. Н. Абашин и др.(ред.)(2008), 4장.

26) Alexander Morrison(2008), 특히, 면화수입 관련 장을 참조.

<지도 3> 1865년 러시아군대 쪽에서 본 타슈켄트 지도27)



1865 йил Россия ҳарбийлари томонидан Тошкент қалъасининг қамали (План)

그런데, <지도 3>을 자세히 보면, 마치 벌집같이 표현되는 <지도 2>와 달리 타슈켄트 공간 구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도시 주변을 성벽이 에워싸고 있으며 성곽 오른 쪽에 보이는 <A>는 난공불락의 요새 코칸드스카야 우르다(Кокандская Урда)이다. 그리고 정 가운데 보이는 <Б>는 고대 실크로드 시대부터 유명했던 시장들을 나타낸다.

한편, 타슈켄트 주민의 도움을 받은 코칸드 군은 1864년 12월 19일에, 도시 투르케스탄의 한 부분에 진입해 이틀 동안 접전을 벌였다. 코칸드군을 지휘한 알림쿨(Алимкул)은 짜르 군에 항복과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제안했으나 러시아군은 응하지 않았고, 식량이 없는 채로 포위되어 결국 57명 사망, 23명 치명적 부상, 나머지는 패주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러시아제국 군대가 중앙아시

27) D. Alimova, map.

아로 팽창하던 시기에 일어난 전투 전체로 볼 때, 이것은 토착민들의 최초의 승리라고 할 정도로 토착민들은 군사기술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28)]

1865년 5월, 체르냐예프는 다른 군사작전을 폈다. 5월 10일, 그는 타슈켄트에서 25km 위치에 있는 니야즈벡 요새쪽으로 진군해 가장 약하다고 판단된 이 요새를 공격하여 4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격전이 벌어진 바 있었다. 짜르군대는 포병이 특히 강했는데, 몇 시간 동안 요새의 벽을 향해 대포를 쏘자, 타슈켄트의 주요 수문의 하나였던 요새가 무너졌던 것이다. 그 후,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도시 안으로 유입되는 식수를 차단하기 위해 치르칙 강둑을 붕괴시켰으며, 타슈켄트 주민들은 10일 동안 식수가 없는 채로 남겨졌다. 10일이 지나,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자신의 부대를 타슈켄트로 보냈는데, 이 때 마침 알림쿨이 이끄는 코칸드군이 타슈켄트에 지원군을 파병함으로써 1865년 5월 22일, 다시 큰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병력과 무기가 후진적인 상태에 있었던 코칸드 군은 몇 번의 전투끝에 괴멸되었으며 알림쿨 자신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29)]

체르냐예프 사령관은 타슈켄트 점령계획을 준비했는데, 부하라 에미리트에서 새로운 증원부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당시 타슈켄트에 살고 있던 10만 여 명의 주민들이 순순히 도시를 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도시의 12개 성문의 상태를 알고 그는 가장 약한 고리인 카말론스크와 코칸드 문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1865년 6월 26(14)일 밤에, 부대의 일부가 카말론스크 문으로 다가가 27(15)일 이른 아침에 대포로 공격하고 도시로 들어갔다. 결국 이틀간의 접전을 마치고 29(17)일에 체르냐예프는 타슈켄트를 점령하였다. 1865년 9월에, 타슈켄트가 러시아에 병합되었음이 공표되었다.[30)]

앞서 보았듯이, 1864년 코칸드 칸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코칸드 칸국의 한 부분에 속했던 타슈켄트가 점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단계에 이루어진 점령과정은 특히 타슈켄트 점령으로 인해 훨씬 수월했다. 즉, 러시아제국은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팽창할 수 있었다. 러시아군대는 1866년 5월에는 호젠트(Ходжент), 10월에는 우라-튜베(Ура-

---

28)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51.

29)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52-53.

30)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3-50. 괄호 안의 숫자는 구력을 표시함.

Тюбе), 쥐작(Джизак), 그리고 1868년에는 사마르칸트와 카타쿠르간(Каттакурган)을 점령하였다. 1873년 2월부터 1879년 8월까지는 정복의 세 번째 단계가 진행되었다. 러시아군대는 히바를 점령하였고, 1876년 2월 나만간(Наманган)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군은 게옥-테페(Геок-Тепе, 다른 이름으로 Ашгабат) 습격에서 잠시 패배를 겪기도 했으나 1880년 말부터 1885년까지 정복의 4번째 단계에 결국 이 요새를 점령했다(1881년). 이처럼 1865년부터 1885년까지 러시아는 투르케스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으며, 그 전쟁은 식민지를 얻기 위한 침략전의 성격을 지녔다. 전제정은 군사권력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었고, 사실상 무방비상태의 주민들을 공격하는데 그 힘을 이용하도록 보장해 주었다.

3. 두 도시 이야기 — 타슈켄트의 구도시와 신도시

1) 토착민들의 타슈켄트 — 구도시

러시아제국은 타슈켄트 정복에 뒤이어 식민지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1867년에 투르케스탄 총독부(Туркестанско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초대 총독으로 카우프만(1867-1882년 봉직)을 임명하였으며 그의 지휘 하에 군정이 실시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투르케스탄 정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앞서 보았듯이 1876년 코칸드 칸국이 붕괴되었고, 부하라 에미라트와 히바 칸국은 보호국의 형태로 러시아에 예속되었다.[31]

식민지 총독부의 수도라는 상황은 타슈켄트를 매우 다르게 변모시켰다. 전통적으로 타슈켄트의 토착민들은 단층 또는 2층의 점토 주택에서 거주했으며, 길은 구불구불했고, 도시에는 크지 않은 운하들로 구성되는 관개식 거리의 망들이 펼쳐져 있었다. 주민들은 관개수로를 통해 식수를 얻었고 일상적 필요를 위해 그 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타슈켄트는 전체적으로 4구역(даха)으로 나뉘었는데, 각 구역에는 우두머리(хаким)가 있었다. 전통도시의 중심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건축계획에 따른 중심지의 기능을 하였다. 도시의 중심은 중앙시장 주위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고대도시의 광장처럼 시장들(Ходра, Иски-Джува и Чорсу)이 삼각형으로 흩어져 있었다. 타슈켄트에는 건축상으로 두드

31) Х. З. Зияев и Ю. Ф. Буряков(ред.)(1988), 122-124, 138-140.

러진 고층건물이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부하라, 또는 그 밖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국가의 수도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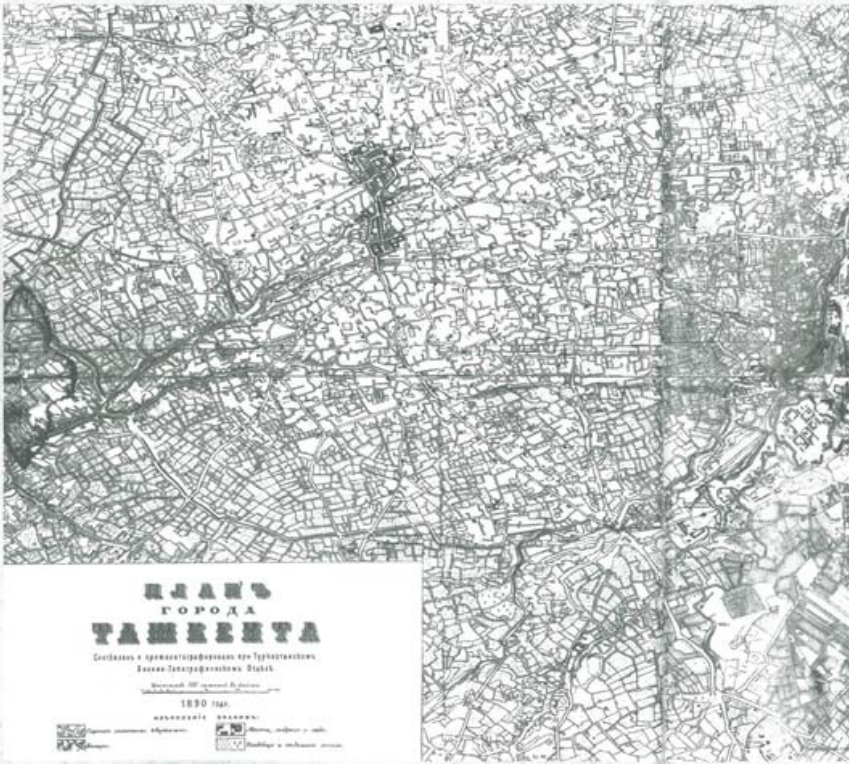
<지도 4>1890년 타슈켄트 지도[32)]

부하라 에미라트와 히바 칸국 같은 곳은 비록 러시아제국의 보호령의 형태로 예속상태에 있었으나 아직은 토착민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데 반해, 타슈켄트는 급속도로 러시아제국의 식민지로 전환되고 있었다. 우선, 식민지 권력관계가 반영된 도시공간을 주목해야 한다. 제국의 군대와 함께 들어온 러시아인 정착민들과 투르케스탄을 오랜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토착민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식민자로서 '유럽인'인 러시아인과 피식민자로서 '토착민'(туземцы)' 사이의 구별은 1865년 타슈켄트 구 도시의 바로 옆에, 안호르(Анхор) 운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인 식민자들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다(<지도 4>참조). 도브로스

32) *Тошкент 2200*(2009); Alimova, map. 화보집으로 나온 이 책은 아쉽게도 쪽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미슬로프(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타슈켄트에는 두 개의 문명이 나타났다. 즉, 하나는 “낡은 중세의(старая средневековая)” 다른 하나는 “유럽의 문명(европейская цивилизация)이었다.[33]

<그림 5> 1890년 타슈켄트 지도(토착민들의 구도시)[34]



병합 이후 약 반세기가 경과했지만, 타슈켄트의 토착민 거주지는 건물의 재료,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거리, 낡아빠진 과거 영광의 잔재들로서 표상되었다. 낡은 거리 안쪽에 지어진 주택은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볏짚과 진흙을 섞어 바로 햇볕에서 말린” 그런 “값싸고 내구성이 약한” 것이었고, 수많은 무슬림학교와 이슬람사원들은 칠이 벗겨지고 무너져 내려 한때의 영광스러

33)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77.

34) *Тошкент 2200*(2009).

운 “과거의 잔재”만 보여줄 뿐이었다. 쉐이한타우르(Шейхантаур), 이샨 구자르(Ишан-Гузар), 아훈 구자르(Ахун-Гузар), 바티르사원(Батырь-мечеть), 하스팀사원(Хастымъ-мечеть) 등 낡은 이슬람 건물들은 오랫동안 타슈켄트 구도시의 외관을 결정지었다.35)

그러나 왜 공간이 분리되었는가?36) 건설된 식민지의 환경에서 우리는 식민지배자들이 식민지 토착민들과 그들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민자들에게 토착민들의 도시는 한편으로는 경이로움,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토착민들의 거주지는 좁았으며, 거리는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마치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작렬하는 태양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토양들은 도시의 색채를 매우 이국적으로 만들어주었으나, 조밀하게 모여있는 주택의 형태는 위생상태가 열악해 질병을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했다. 19세기 중엽에 제국의 중심으로부터 여행가들, 선교사들, 군인들, 관리들,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타슈켄트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작성한 기록들 가운데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표현은 “질척하고 더러운 골목길”, “인구밀도가 높은 주택들”, “작렬하는 태양과 화려한 색채” 등이었다.37) 동시에 토착민들의 도시는 무질서와 무계획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배자들에게 걱정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실크로드의 고대 상업도시로서, 토착민들의 골목 상권과 시장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역사적 형성물로서 자연스런 것이었으나, 식민지배자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스템은 피식민지인에 대한 지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해졌는데, 당시 토착민구역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러시아인에게 적잖은 위협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것은 타슈켄트 정복 이후에 새로운 요새 건설과 신도시 설계안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

35)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74, 78.

36) 직선의 신작로, 넓은 가로수길, 수도, 가로등 등 근대적 인프라의 다른 구조물들이 구도시와 떨어져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아시아-유럽의 이분적 도시구조는 정확히 식민지도시 프로젝트의 본질이었다. Zeyn Celik(1997), 35-89; Stephen Legg(2007) 2-3장; Robert Home(1997).

37)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검색일: 2012.10.5). 예컨대, 화가 베레샤긴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술, 아시아에 대한 진술부분.

2) 러시아 식민자들의 신도시

타슈켄트를 침공한 후에, 러시아군대는 우르다(Урда) 지역의 코이마스문 쪽으로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존의 코칸드스카야 우르다 요새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안호르(Анхор) 운하의 좌안에 이미 존재하는 구도시의 요새 성벽과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러한 요새건설 계획은 군지형 전문가이자 대위(военный топограф штабс-капитан)인 피사렙스키(Писаревский)에 의해 기안되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전제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첫째, 그의 계획안에서는 방사선의 환형고리 모양의 도시구조가 전제되었다. 즉,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는 5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신축한 새 요새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도록 배치되었고, 3개의 환형고리 모양의 거리로 이루어졌다. 둘째, 신도시는 남쪽에 세우는 것이 전제되었고, 신축한 새 요새로부터 북쪽으로는 추가적인 성벽을 쌓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즉, 도시 자체는 하나의 단일한 방어체계를 지니는 큰 요새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피사렙스키의 계획안은 거부되었다.[38] 만약에 그의 계획안이 실현되었더라면 러시아 식민자들과 토착민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러시아군대의 주둔과 함께 러시아인들을 위한 거주지가 생겨났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신도시는 시작되었다고 해야 한다. 즉, 1865년 8월에 체르냐예프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요새와 숙사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10월에 대략 준비를 갖추었다. 1866년 봄에 체르냐예프의 후임으로 온 로마놉스키(Д. И. Романовский) 사령관은 향후의 러시아 도시를 위한 장소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형의 새로운 도시설계를 위해, 그해 6월에 로마놉스키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특별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군사 엔지니어, 군지형 전문가, 측량기사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었다. 특히 당시에 사르트인들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빈 터였던, 구 타슈켄트 오른 쪽의 보즈수(Бозъ-су, 우즈벡어로는 Bozsuv)와 차울리(Чаули) 사이의 장소이자, 구 코간트와 신축한 요새의 중간에 위치하며, 안호르 운하와 차울리 관개수로(арык Чаули) 사이에 있는 땅을 신도시의 부지로 선택했다.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 코간트에 있던 낡은 건물들은 헐렸으며 이제 새로운 군주둔지가 건설되었다. 즉, 군 사령관, 오렌부르그 제2보병대대, 75

38) В. А. Нильсен и В. Н. Манакова(1974), 1장.

명 카자키, 시베리아 포병중대가 머무는 건물들과 전 병사의 퍼레이드를 위한 연병장 등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구 우르다의 나머지 지역에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가족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도시가 나뉘었고, 신도시는 요새, 부대의 막사, 민간주택 건물로 블록이 나뉘어졌다. 중앙의 도로는 직선의 대로였음은 물론이다. 이제 새로운 유럽식 도시가 생겨났다. 신도시는 이미 설계가 착수되었던 시점부터 신분과 재산원칙에 기초하여 구역이 정해졌다. '특별조직위원회'는 건축설계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면적을 30루블, 20루블, 10루블 등 3등급으로 분할했던 것이다. 그리고 1866년 6월부터 1868년에 1월까지 국가의 공공기관과 500채 정도의 개인주택이 건설되었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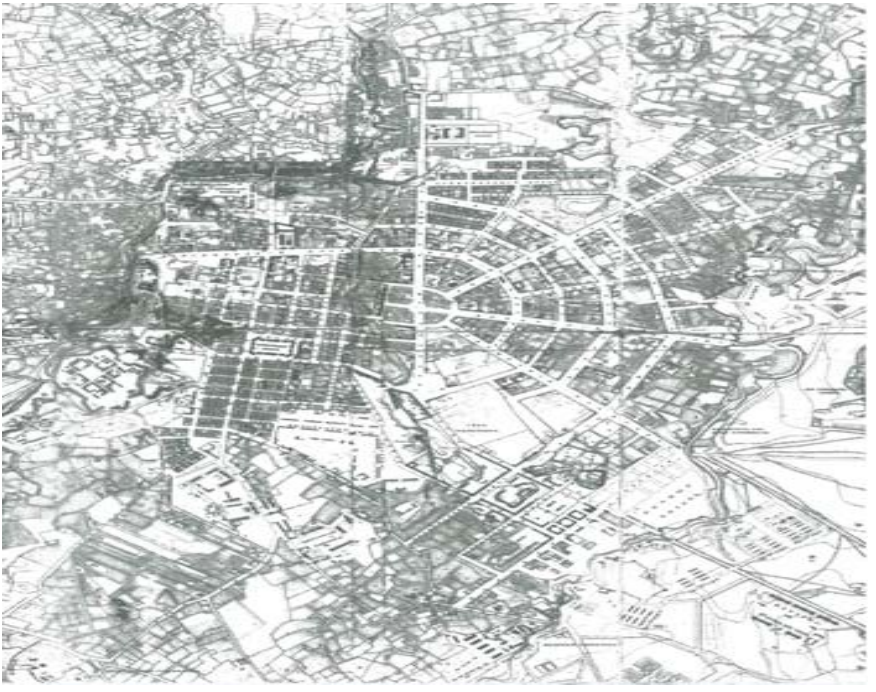
1867년 후반에 투르케스탄 초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타슈켄트에 온 카우프만은 투르케스탄의 식민지체제의 행정적, 경제적, 법적, 종교적, 교육적 토대를 공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타슈켄트의 공간구조, 거리 및 건물 조성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우선은 투르케스탄 총독부 설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투르케스탄 총독부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러시아제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상당부분 연동하는 영토적,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즉, 타슈켄트 병합 이후에도 잇단 정복전쟁으로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행정적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영토적 공간이 늘어났다. 투르케스탄 총독부 지역은 처음에 3개의 행정구역, 즉 ①시르 다리야 ②세미레치예 오블라스치(주, область), ③자라브샤(관구, округ; 나중에 사마르칸트 오블라스치가 되었음)으로 나뉘었는데, 1873년에는 히바 칸국 병합에 의해 아무 다리야 부(отдел)가, 그리고 1876년에 페르가나 오블라스치(1875년 봉기에 의해 해체된 코칸드 칸국의 나머지 지역)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881~1885년에 정복한 트란스 카스피해지역이 1894년에 투르케스탄 총독부 지역에 추가되면서,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영토의 경계가 확정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지리기록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다. 즉, 1899년『러시아: 조국지리기록총감』1권 출간 당시에 투르케스탄의 행정적 경계는 ① 시르 다리야 오블라스치 ② 아무 다리야 부 ③ 자라브샤-페르가나 오블라스치 ④ 파미르로 나뉘었다.[40]

---

39) А. И. Добросмыслов(1912), 72-73.

40)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899), vii.

<그림 6> 1890년 타슈켄트 지도(러시아인들의 신도시)[41]



다음으로는 러시아제국이 타슈켄트의 동쪽에 신도시를 수립한 의미를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반으로 쪼개어 제시한 두 개의 지도를 보라. 타슈켄트 도시공간은 서쪽의 전통적인 토착민의 주거지(<그림 5>)와 동쪽의 러시아인 신거주지(<그림 6>)로 확연히 나뉘었다. 1890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 지도는 타슈켄트 정복이후 그동안 도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토착민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동쪽에 대한 의미부여가 필요한 듯하다. 왜냐하면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장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군 지형전문가 피사렙스키 대위는 토착민지역과 연결되면서 남쪽으로 확장할 도시계획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 로마놉스키 사령관은 부지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건축가 콜레스니코프(М. Н. Колесников)에게 새로운 도시계획을 주문하였던 것이다. 콜레스니코프는 안호르운하를 경계로 토착민들과

41) *Тошкент 2200*(2009).

격리된 새로운 유럽도시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그 후 1870년에 군 공학자 마카로프(А. В. Макаров)는 방사선의 환형고리 모양의 도시계획을 구체화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42)

공간에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입장에 섰을 때, 신도시 계획자들이 구도시 내부, 또는 구도시의 서쪽 혹은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세운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타슈켄트 남쪽은 치르칙 강으로 연결되어 있어, 신도시는 풍부한 수량의 강물을 이용해 도시발달을 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는 동쪽에 건설되었다. 신도시 위치선정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는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우측은 좌측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동쪽은 빛, 흰색, 하늘, 그리고 상승을 의미했고, 서쪽은 어둠, 참, 하강을 의미했다. 게다가 기독교 건축에서 교회의 방향은 옛날부터 태양의 경로에 민감했으며, 기독교적 우주에서 동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중세의 T-O(Orbis terrarum) 지도에 명백히 나타난다"는 것이다.43)

아울러 우리는 신도시가 무엇보다도 러시아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그를 그대로 옮겨놓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도시건축사 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그 공간의 특징은 '해군성'을 중심으로 3개의 방사선 도로가 부채꼴 형태로 펼쳐졌다는 점이다. 도시공간의 이러한 토대는 1737-38년에 완전한 틀이 만들어졌는데 노브고로드 방향의 구도로, 그리고 고로호바야(гороховая) 중심도로를 해군성과 연결하기 위해 1712-1718년에 넵스키 대로(невский проспект)가 건설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그의 공간 구성에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고딕, 바로크양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계획 속에는 확고한 하나의 원칙이 서 있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즉, 조망에 있어 수도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배치, 직선의 대로, 기하학적인 동질성 및 연속성이었다. 모든 도시는 권력을 물리적으로 드러내곤 하는데, 특히 제국과 제국의 권력이 펼쳐지는 무대인 수도에서 도시설계는 통치권을 과시하는 기술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며, 군주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제국의 원칙이었다. 아울러

42) В. А. Нильсен и В. Н. Манакова(1974), 1장.

43) 이-푸 투안(1995), 76, 158-159. 그리고 장소(space)와 경관(landscape)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전종한(2005), 2장 참조.

수도는 러시아 제국통치자의 권력을 표현하는 전시장이었다.[44)]

타슈켄트의 신도시는 제국권력의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3개의 방사선 도로인 사보르나야, 카우프만스카야, 로마놉스카야 거리와 함께, 체르냐예프 거리, 쿠로파트킨 거리, 보론쪼프대로가 직선으로 뻗어있었고, 가로수길(бульвар)이 넓게 펼쳐진 공간 옆으로 유럽식 건물들이 줄지어 건설되어 상트페테르부르그를 연상시켰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서관, 우체국, 정부관사 등을 포함한 거대한 공공건물들, 갖가지 꽃들과 나무로 이루어진 넓은 정원들이 조성되었다.[45)] 또한 신분과 재산자격에 기초해 건설된 신도시의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단층집 또는 드물게 진흙 벽돌의 이층집으로 건설되었는데, 더운 계절에도 편안한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높은 천장(최대 3.5미터)과 두꺼운 벽(두께가 최대 1.5미터)을 기본으로 하였다. 거의 모든 주택은 가정용으로, 식물재배용으로 충분히 넓은 마당을 두었으며, 1874년부터 수도와 하수관 망이 건설되었다.[46)]

식민주의 체제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려는 권력자의 의지는 도시경관에 변형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식민주의 지식권력이 알려진 것들을 분류함으로써 세계를 정리하려고 했듯이, 엔지니어들은 근대적 식민지 공간을 만들고 식민지를 알 수 있는 패턴으로 정리하려고 애썼다. 카우프만 자신이 바로 그러한 엔지니어였다. 100여 년 전에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오스트리아계 혈통의 후손인 카우프만은 공병을 육성하는 니콜라예프 엔지니어학교(현재의 군사공학-기술대학)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공병으로 군대에 들어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는 카프카스 원정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훈장을 수훈하였고 49세에 투르케스탄 총독에 임명되었다. 공병 출신답게 그는 식민지 공간을 정리하고, 위생처리하고, 규제가 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다.[47)]

---

44) 기계형(2006), 40; 스피로 코스토프(1991), 235-236.

45) 문명화 과정의 맥락에서 '제국의 정원 가꾸기' 방식과 그에 대한 토착민들의 반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제기를 참조. I. Gerasimov(2008), 11-17.

46)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913), 613.

47)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1890-1907), Кауфман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항목; Евгений Глущенко(2001); А. Семёнов(ред.)(1910), LXXXIV(이 책은 카우프만을 기리기 위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즉 바르톨드, 오스트로우모프, 베셀롭스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 책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투르케스탄에서 카우프만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설과 노래, 민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론에서 책임편집을 맡은 세묘노프는 카우프만을 기리면서, 동시에 투르케스탄에

그는 새로운 타슈켄트 도시공간을 형성하는데 놀라운 에너지를 기울였다.[48] 그는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그를 타슈켄트에 건설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도시 공간을 통해 재현되는 유럽적 근대성이 종국에는 아시아 토착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더욱 철저히 유럽적 문명의 구현물로서 도시공간을 근대화하는데 주력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원정을 떠날 때 수많은 학자들, 탐험대, 예술가들을 데려갔듯이, 카우프만도 타슈켄트로 떠날 때 민속학자, 과학자들, 탐사대, 건축가, 엔지니어, 예술가들을 신병으로 차출했으며, 그 집단 속에 화가 베레샤긴도 포함되어 있었다.[49] 그는 수려한 나무들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제국의 정원을 타슈켄트에 만들어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출간된 투르케스탄 관련 서적들을 집대성한 도서관을 지었는데, 1867년부터 1888년까지 모은 투르케스탄 콜렉션(*Туркестанский сборник*) 416권이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타슈켄트로 운반되었다.[50] 아울러, 또한 투르케스탄에 관한 정보를 모은 공식적인 주간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Туркестанская ведомость*). 더구나 영국의 인도 사진콜렉션과 똑같은 형태로 투르케스탄 사진콜렉션(Туркестанский Альбом)을 출간했다.[51] 더군다나 그는 화가 베레샤긴이 3년 동안 해외에 머물면서 투르케스탄 시리즈를 완성하고 전시회를 열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었다.[52]

그런데, 도시공간 개조에 들인 그의 노력은 한편으로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유럽 열강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식민지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과거 통치자의 땅을 빼앗아 토착제도들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는 토착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고 상징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상징성을 띠는 주요지점을 강탈한 사례는 정복자의 세계

대한 지속적인 연구진작을 위해서라고 책의 목적을 쓰고 있다).

48) Светлана Горшенина(2007), 291-354.

49)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2009), 179-209;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2010), 76-91.

50) В. И. Межов(1878).

51) Jeff Sahadeo(2007), 38-44.

52) В. Верещагин(1990)(원본은 1899년에 출간)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토착민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권력의 상징이자 구질서를 제압하는 권력으로서 새로운 식민지 수도를 세우는 행위는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곤 했다. 영국이 인도에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반복했던 조치는 토착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였다. 또한 일단 정복이 끝난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식민지권력은 확고한 식민지 통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전통적 권력의 일부 요소들을 지원한다. 예컨대, 술탄의 궁전을 재건축하고, 그 옆에 총독의 저택을 설치함으로써, 양자간 연합이라는 상징적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시공간은 단지 식민주의의 열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제국의 경우에는 식민정책의 본질은 유사하지만 방식을 달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식민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법적, 행정적, 치안(경찰력) 조치들과 함께, 특히 공간적(구도시/신도시)으로, 인종적(유럽인종/아시아인종)으로, 종교적(이슬람/정교)으로 토착민과 러시아인들을 분리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토착민들의 구도시를 파괴하고 구질서를 제압하는 방식으로서의 식민지 수도가 아니라, 구도시와 멀리 떨어진 공간에 완전히 새로운 제국도시를 건설한데 있다. 물론, 카우프만은 구도시에 기존의 요새와 성곽을 깨고 다시 견고한 '팬옵티콘'으로서의 성곽을 짓지만, 그것은 군정통치의 상징적 행위일 수 있었다. 오히려, 신도시의 공간조성에 들인 비용과 에너지는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되지 않았다. 적어도 제국권력 통치자들의 눈에는, 선진적인 유럽(러시아)문명의 상징인 근대적 건물들은 러시아 식민인 들뿐만 아니라 토착민(일부)들도 편입시키고 범주화하고 훈육, 조정, 개조해가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어쩌면 그들은 도시형태 그 자체와 근대적 건물을 통해 식민지 토착민들의 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53]

3) 식민지 공간에서 식민정책의 강화

그렇다면 실제로 타슈켄트 공간을 두고 펼쳐졌던 러시아제국의 식민정책의 성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포스트식민주의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53) 조앤 샤프(2011), 102.

도시공간에 내재된 식민지 권력구조의 구성요소들에는 ①교회(특히 에스파니아 식민지에서 일반적), ②회사(영국동인도회사, 네덜란드동인도 회사 등), ③군대(쉽게 통제하기 위해 질서있고 가시적인 공간을 원함), 그리고 ④식민지 국가 자체(복합적인 권력행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활동을 통해, 식민지 공간에 대한 식민지정책이 구체화되기 마련이다.[54]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 타슈켄트에서도 그러한 식민지 권력구조가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타슈켄트는 무중력상태에서 존재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식민정책과의 맥락 속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 사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러시아제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권력행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컨대 행정적, 법적 조치는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한가? 카우프만 총독시기(1867-1886)는 기본적으로 군정에 기초한 행정체제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투르케스탄의 행정이 매우 임시적인 상태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제국의 변두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총독은 적어도 자신의 임기동안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처음에 카우프만은 인근국가들과의 협상, 예산비용 책정 및 감독, 세금 책정, 러시아인의 특권적 지위 수립권, 사형확정 및 취소권, 사형을 군법에 넘길 권리 등을 부여받았다. 카우프만의 요청으로 타슈켄트에 오게된 베레샤긴은 이곳에서의 삶과 관련해 서간문과 일기 등 여러 글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투르케스탄 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묘사를 덧붙였다 "[...] 나는 우리 마당에서 카우프만 사령관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또는 무기를 소지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 또는 다른 좋지 않는 일을 했다고 폭로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행하였다. 최고의 호인 콘스탄틴 페트로비치는 장교들에 의해 에워싸여, 행군 의자에 앉아, 파이프담배를 피우며, 정말로 냉정하게 외쳤다. "총살, 총살, 총살, 총살! [...]"[55]

당시에 러시아제국의 어느 곳에서도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런 종류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르케스탄에서 그가 부여받은 전권은 토착민들이 그를 "제2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했다. 카우프만으로서는 임시적인 군정상태에서 벗어나 제국 행정의 틀 속에 확고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투르케스탄을 제국에 통합하려고

54) 조앤 샤프(2011), 103.

55) С. Н. Абашин, и др(ред.)(2008), 322에서 재인용.

할 때 이 지역의 잠재성에 대한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 곳은 유럽러시아로부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건너는데 2달이 걸리는 광활한 스텝이라는 것 말고도 이곳은 이슬람문화에 의해 짜르의 관리들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결정적으로 고립된 곳이었다. 18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맥락에서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러시아제국의 행정은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토착민 행정 위에서 느슨하게 중첩되어 있었다고 설명해야 하며, 카우프만이 그토록 기를 쓰고 투르케스탄의 근대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동시에, 그가 처한 역설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56] 왜냐하면, 점령 직후에 러시아제국은 현지 토착민들의 기본 생활, 규범, 종교 등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토착민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1865년, 1867년, 1886년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공표되었다. 우선적으로 1865년 8월 6일, 알렉산드르 2세는 '투르케스탄 주의 행정에 관한 임시법(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б управлении Турк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ью)'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군민(軍民) 합동행정시스템으로서 중앙에서 군사령관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며, 그의 손에 군민 권력 전체가 집중되는 일종의 군정체제를 용인하는 법령이었다. 각 행정부서의 자리에는 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권을 지니고 토착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일반적인 감시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토착민들에게 맡겨졌다. 즉, 전통적으로 이슬람의 콰디스법정(Qadis' courts), 그리고 연장자나 가장인 '악사칼((аксакал)'에게 많은 권력을 주는 토착민 행정이 보존되었다.[57] 이처럼 처음부터 지방행정이 토착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과제는 토착민들에 대한 짜르행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58]

---

56) Jeff Sahadeo(2007), 32-33.

57) Jeff Sahadeo(2007), 111, 151, 158, 188; 도시의 모든 구마다 악사칼들이 있었는데, 악사칼은 가옥소유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라이시(раисы)는 경찰기능을 담당하며, 바자르 시장에 대한 감독과 공공질서를 감독하였다. 자캬치(закячи)의 직무는 세금징수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토착민에게 카지예프(казиев)법, 특히 유목의 토착민들에게 비예프(биев)법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이다. 재판관은 3년마다 선출되었다(Хидоятов и Костецкий 2003: 45).

58) 예컨대, 1866년에는 마흐카마(махкама)라고 부르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흐카마에는 토착민 대표들에 의해 선출된 카지(казий)와 7명의 아글람(аглям)이 포함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의 가장 부유한 영향력있는 토착민들이 200명

그 후, 1867년 7월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закон о создании Туркестанского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а)'을 채택함으로써,[59] 러시아정부는 식민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행정권력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60]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제국의 목적은 투르케스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내부의 다른 왕국들에서 수행되었던 그러한 행정 및 정치제도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배를 확고히 하고, 정치 · 경제적 삶에 대한 총체적인 통제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지닌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투르케스탄, 부하라, 히바, 코칸드를 서로 완전 격리하는 것으로서, 그들 지역 사이에 자율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차단시켰으며, 그것은 러시아제국이 이웃국가들과 국경을 확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종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방법이었다.[61] 그와 함께 러시아정부가 채택한 방법은 러시아의 가난한 무토지

이상 행정으로 초대되었고, 그들이 마흐카마의 의원을 뽑았다. 그리고 마흐카마의 활동은 군사령관의 통제에 들어갔다. Х. З. Зияев и Ю. Ф. Буряков(ред.)(1988), 150-158; Г. А. Хидоятов и В. А. Костецкий(2003), 46.

59)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르 다리야 오블라스치, 베르노예(오늘의 Алматы)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레첸스크 오블라스치가 포함되었다. 시르다리야 오블라스치를 병합하면서 새로운 행정-영토단위가 만들어졌는데, 1868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라프샨스크 관구(округ), 1874년 페트로알렉산드롭스크(오늘 날, Турткуль)를 중심으로 하는 아무다린스크 부(отдел), 1876년에는 코칸드 칸국을 없애는 대신에, 노비 마르길란(페르가나)을 중심으로 하는 페르간 오블라스치가 만들어짐.

60) 1867년의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은 투르케스탄에서 다양한 관습적인 법(카지예프 법, 우예즈드 법, 임시군사법위원회, 오블라스치 행정법, 사무국 법)의 존재를 용인해주었다. 또한 짜르 전제정은 무슬만법(фикха), 가족법(адата), 민사법(шариат)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무슬만 국가들의 전통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것은 짜르의 행정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투르케스탄 토착인구의 거의 95%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토착민관리들, 즉 '카지예프'와 '비예프'의 원조를 호소하였다. Adeeb Khalid(1998), 서문, 1장.

61) 1869-1872년에 영국과의 협정은 파미르고원의 편잡지역을 따라 경계를 나누었는데, 그에 다라 타지크인의 지역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1881년 스코벨레프 사령관이 투르크메니야를 점령한 후에는 이란과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그 해에 일리스키 크라이에서 짜르군에 의해 반란이 진압된 후에, 러시아군주와 청국황제가 협정을 맺었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과 청국 사이에 현재의 국경이 만들어짐. 최종적으로는 1885-1887년, 1891년에 영국과 국경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투르케스탄에 광범위하게 섞여 살았던 중앙아시아인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다. 그리고 1917년 혁명 이후, 최종적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은 5개 공화국으로 분리되

농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러시아 인으로 신도시 주민을 구성한다는 점에 있었다. 타슈켄트가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고 중앙아시아로의 팽창이 계속되자, 많은 러시아인 식민자들이 이곳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1886년 7월 12일, 알렉산드르3세는 '투르케스탄 지방에 관한 새로운 법(новое Положение о Туркестанском крае)'을 승인했는데, 그것은 1917년 혁명전까지 큰 변화없이 수행되었다. 그것은 행정조직, 법률기구, 토지기구, 세금 등의 4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은 총독부라는 단위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향후 제국 행정제도와 통일을 전제한 것이었다.[62]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전체면적은 170만 평방km에 달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와 독일 면적을 합한 것보다 두배 정도 컸다. 타슈켄트의 구도시 오른쪽에 조성된 신도시로 러시아인들이 몰려들어 왔으며, 구도시와 신도시는 1877년부터 도시두마가 허용되어 원칙적으로는 단일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바르톨의 설명에서도 잘 지적되고 있듯이 러시아인의 신도시는 "인구상으로 아랍인들보다 적지만 특권을 이용했고, 구도시는 덜 배려받았다……. 유럽적 의미의 도시생활은 오로지 러시아인들의 신도시에서만 존재했다."[63] <1897년 센서스>에 따르면, 타슈켄트 도시인구는 155,673명으로 기록되는데 1910년에는 총 201,191명으로 증가했다. 그들 중에서 러시아인의 숫자는 54,500명에 불과했고, 인구의 대다수인 무술만은 토착민들 지역에 거주했다.[64] 그렇지만,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토착민들의 자연적 증가(20배)에

었다(Хидоятов и Костецкий 2003: 47).

62) 1886년 법에 따라, 투르케스탄총독부는 '투르케스탄 총독부 평의회'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덧붙이게 되었다. 이 평의회의 의장은 총독이었는데, 각 오블라스치의 군지사, 총독부 사무국 주임, 투르케스탄군 참모장이 포함되었다. 이 조직은 이 지역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적 이니셔티브를 가졌다. 한편, 1877년에 타슈켄트에서 도시 두마법이 도입되었는데, 그와 함께 두마에서 도시를 관리하게 되었고 도시의 경제도 두마에 달려 있었다. 도시 두마의원의 1/3은 토착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2/3은 러시아인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 두마에서 8만명의 토착민은 21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되었고, 3900명의 러시아인은 48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되었다. 도시두마의 상위 기관은 시장인데, 총독 자신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전쟁장관을 승인한다

63) В. В. Бартольд(1965), 50. 1886년부터 투르케스탄에서 '러시아-토착민 학교'라고 부르는 82개의 학교시설 설립이 준비되었으나, 구도시의 토착민들과는 상관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64)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913), 607.

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을 포함해) 인들의 증가(2배) 속도는 크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한다.65)

4) 식민지 공간의 균열

1913년에 발간된 『러시아: 조국지리기록총감』 19권은 투르케스탄에 관한 각종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묘노프(А. П. Семёнов-Тянь-Щанский)와 바르톨드 등이 결론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편자인 마살스키(В. Масальский)는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투르케스탄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투르케스탄은 대부분 지금까지 먼 곳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곳, 변경, 낯선 상태에 있는 곳, 열악한 조건에 있고, 머나먼 변두리로 자신의 운명이 던져진 러시아인이 부득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려진다"고 운을 떼며, "우리는 유럽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알제리, 이집트, 미국을 다녀왔지만, 학자도, 봉직자들도, 상인들도, 사업가도 아닌 러시아인들이 투르케스탄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행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이 너무 드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투르케스탄이 매우 "빠르게 발전적으로 변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쓰고 있다.66)

그렇지만, 이미 타슈켄트 도시공간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철도건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철도는 러시아 제국경제에 실제로 막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나, 군사-전략적 목적은 중요했다. 특히, 타슈켄트 공간의 변화에 미친 '신(新)트랜스카스피해' 철도의 위력은 매우 컸다. 1877년에는 카스피해 해안에 위치하는 우준 아다(Uzun-Ada)에서 출발하는 '트랜스카스피해' 철도가 전부였는데, 1888년에 이르면 사마르칸트까지 달리는 '신트랜스카스피해' 철도가 부설되었다. 철로의 첫 구간은 군대 수송을 목적으로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크질 아르바트까지, 그리고 군사장비 수송을 위해 카프카즈에서 중앙

65) <1897년 센서스>에 따르면, 우즈베크인과 다른 토착민족들은 총 5백만 명 정도였고, 1911년에는 거의 6백만 명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러시아인의 숫자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을 포함해 1897년에 197,000명, 1911년에는 400,000명을 넘었다. 결국, 14년 동안(1897~1911년) 이 지역의 토착민의 인구는 20% 증가했던 데 반해, 러시아인의 숫자는 2배 증가한 것이었다(Хидоятов и Костецкий 2003: 49).

66) В.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1913), v-vi.

아시아까지 건설되었다. 바로, 1888년에 이렇게 건설된 철도를 통해 첫 기차가 사마르칸드에 들어왔고, 1899년에 철도는 타슈켄트를 지나 안디잔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제국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이러한 철로건설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카프카스에 기지를 두고 있던 러시아제국 군대는 여기에서부터 배로 카스피 해를 빠르게 통과하고, 철도를 타고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부터 사마르칸드, 타슈켄트, 안디잔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즉,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안디잔까지 3천km도 넘는 장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19세기 말로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졌다. 물론, 타슈켄트의 공간적 분리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타슈켄트의 동쪽은 신도시, 서쪽은 구도시가 존재했으며, 동쪽에는 인종적으로 유럽인들인 러시아인들이, 서쪽에는 아시아인 토착민들이 정착하였다. 러시아 정착민들은 양식과 다른 생활용품을 토착민인 '사르트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들이 끌어오는 운하의 물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흘러오는 것이었다. 러시아인 정착민들은 그 지방언어에 무지했으며, 계산이 서툴렀고,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렸을 때 치료법을 알지 못했고, 더욱이 경작방식도 몰랐다. 그와 반대로, 토착민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타르 한 압둘가파로프(Sattar Khan Abdulghafarov)와 무히딘 호야 이샨(Muhidin Khoja Ishan) 같은 사람들은 양쪽 사회의 중재자이자 무슬림 재판관(Qazis)으로서 식민지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분리해서 거주하면서 되도록이면 마찰을 빚지 않는 방법이 막중한 의미를 차지했다.[67]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면 다양한 계급적 배경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타슈켄트로 몰려들면서, 러시아정착민들의 사이에서 계층적, 계급적 구분이 뚜렷해지게 되었다. 식민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들어온 퇴역군인들과 농민들, 신 트랜스카스피해 철도을 타고 유입된 철도노동자들 등 새로운 계층의 유입자들이 생겨났으며, 시간이 갈수록 정착민들 가운데 분화가 일어났고, 기존의 정착민들과 나중에 유입된 정착민들 사이에 긴장관계도 생겨났다. 또한 러시아인 지식층도 다양한 노선으로 갈라졌는데, 투르케스탄의 전임총독인 카우프만과 같은 계몽적 자유주의자,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타

67) Jeff Sahadeo(2007)의 연구는 양쪽 사회를 드나들었던 토착민사회에 대해 간략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주제는 20세기 초 자디드(Jadids)의 활동과 관련해 더욱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슈켄트의 식민자 러시아인들의 탐욕, 군사적 모험주의, 부도덕성, 그리고 악덕을 비난한 살티코프-시체드린과 같은 진보주의자, 그리고 사회혁명당 좌파 등 입장이 다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착민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타슈켄트 병합이후 은폐되었던 양쪽의 불만을 일시에 터뜨리는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분열의 시작은 타슈켄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68]

4. 나가는 글

타슈켄트는 '투르케스탄'의 중심도시로서, 1865년에 러시아제국에 병합된 이후에 매우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 타슈켄트는 면화 대체생산지로서의 잠재성, 아시아에 인도식민지를 지니고 있던 영국과의 '거대게임(great game)'으로 말미암아, 전략적 · 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식민기지'여야 했다. 둘째, 타슈켄트는 1867년 이후 투르케스탄 총독부의 수도가 되면서, 식민지에서 '문명화의 사명'을 강조했던 다른 유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러시아제국을 구현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가장 '유럽적인' 근대성을 보여주는 식민도시가 되어야 했다. 셋째, 고대부터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타슈켄트는 러시아제국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그리스문명, 페르시아문명, 아랍문명, 몽골문명 등이 교차하며 발전한 '문명의 집산지'였으며, 러시아제국에 군사적으로 병합된 이후에는 이슬람이 우세한 이 지역에서 기독교의 문명적 대안(정교회)으로서 '러시아'의 근대성을 시험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했다. 넷째, 타슈켄트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있는 러시아제국에게 제국을 떠받치는 '중추'여야 했다. 오랫동안 러시아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제국 동쪽의 주변지역, 즉 중앙아시아(그리고 아시아의 시베리아)는 후진적인 지역으로서 러시아가 짊어져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보였으나, 통치자들은 러시아제국의 정통성이 중앙아시아

68) 콜레라봉기에 대해서는 Jeff Sahadeo(2005), 117-139 참조. 1892년 콜레라 예방조치를 둘러싼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토착민들은 통용되는 관습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평화시위를 벌였는데, 하층민 러시아인들이 폭력으로 대응하여 적어도 80명의 '사르트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태로 나아갔다. 어느 누구도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막을 수 없었다.

에 대한 지배력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투르케스탄이 없이 러시아제국이 유라시아제국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전략적, 경제적 의미의 식민기지, 유럽적 근대성을 이식해야 하는 식민도시,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접점으로서 러시아적 근대성의 지렛대, 유라시아제국을 떠받치는 중추로서 타슈켄트가 러시아제국에 대해 지니는 도구적 또는 모순적 관계는 처음부터 양자 관계를 규정하였다.

타슈켄트의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그대로 도시공간에 표현되었다. 타슈켄트는 향후 투르케스탄 정복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행정단위로 보면 제국행정의 전체적 구조 속에 정상적으로 안착한 것이 못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구조는 상층부에는 강력한 전권을 휘두르는 총독과 관료기구가 존재하였던 것에 반해, 토착민들의 행정은 토착민들의 이슬람 관습과 전통에 의해 유지되는 이중구조가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투르케스탄 식민지체제 안에서 러시아제국은 군사력, 경찰력 등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행정, 법, 교육, 종교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식민자들의 인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해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러시아제국 권력에 의한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제국은 도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토착민 사회에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대영제국의 인도식민지, 그리고 프랑스제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제국의 식민지인과 피식민지인 사이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와 배제, 그리고 분리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 러시아인 통치자들은 안호르 운하를 사이에 두고 구도시 오른쪽에 유럽적인 타운을 건설하였고, 3개의 방사선 구조가 펼쳐지는 넓은 대로, 가로수길, 흰색 방갈로, 거대한 규모의 공공건물을 건설했다. 이러한 신도시의 건설은 구도시의 더러운 골목길과 완전히 비교되는 유럽적 근대성의 우월한 합리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대한 러시아제국의 식민지정책이 타슈켄트 병합과 함께 진행된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형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 대한 식민정책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도화를 수반하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었으나, 제국의 중심부와 외부세계에 '러시아의 근대성'을 과시하고 선전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공간 구조에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제국이 타슈켄트에서 만들어낸 ‘근대적’ 도시공간은 기실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력의 열망, 다수를 차지하는 토착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 등을 투사하는 ‘전근대적’ 공간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착민들과의 격리를 본질로 하는, 토착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새롭게 지어진 ‘이질적’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타슈켄트의 도시공간에서 토착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구도시는 높은 수준의 학문단체, 교육기관들, 언론매체, 종교기관 등 ‘유럽적 문명’을 나타내는 신도시와 별개의 세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타슈켄트 도시공간은 ‘근대성’이 주장되었으나 원천적으로 근대성을 봉쇄한 ‘역설적’ 공간이었다. 19세기 말로 갈수록 분리와 배제에 기초하는 타슈켄트 공간구조는 여러 다양한 도전을 받았으며, 특히 양쪽 사회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 1차 문헌 =

Бартольд, В. В.(1927)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Туркестана*, Л.: Изд-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_____(2002) *Сочинения*, Т. 3, Работы по исторической географии, М.: Изд-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ерещагин, В.(1990) *Повести. Очерки. Воспоминания*, М.:Сов. Россия(초판 1899년 간행), http://az.lib.ru/w/wereshagin_w_w/text_0060.shtml(검색일: 2012.9.25).

Добросмыслов, А. И.(1912) *Ташкент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ашкент: Электро-паровая типолитография О. А. Порцева.

Межов, Владимир Измайлович(1878) *Туркестанский сборник сочиненій и статей, относящихся до средней Азіи вообще и Туркестанскаго края в особенности: систематическій и азбучные указатели сочиненій и статей на русском и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ах*, Т. 1, СПб.: тип. В. Безобразова и К°

Семёнов, А. А.(ред.)(1910) *Кауфманский сборник, изданный в память 25 лет истекших со дня смерти покорителя и устройтеля Туркестанского края*, М.: Т-ва И. Н. Кушнерев.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В. П.(ред.)(1899) *Россия: Пол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СПб.: Изд. А. Ф. Девриена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В. П.(ред.)(1913) *Россия: Пол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писание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СПб.: Изд. А. Ф. Девриена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1901) Т. XXXIV(67), СПб.

= 2차 문헌 =

기계형(2006)「18-19세기 이중수도의 형성 – 상뜨 뻬쩨르부르그와 모스끄바」,『서양사론』88호, 31-62.

_____(2012)「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정복과 권력의 시각적 재현 – 화가 베레샤긴의 투르케스탄 회화」,『슬라브학보』27:4.

김상철(2011)「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의 변천: 식민지시대 도시에서 현대 국

민국가도시로의 발전모델」, 『중앙아시아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1.
렐프, 에드워드(2011)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서울: 논형.
로트만, 유리(1996)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서울: 열린책들.
샤프, 조앤(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이영민, 박경환 옮김, 서울: 여이연.
전종한(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서울: 논형.
코스토프, 스피로(1991)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양윤재 옮김, 서울: 공간사.
투안, 이-푸(199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윤.
Абашин,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и др(ред.)(2008)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Герасимов, И., Глебов, С., Каплуновский, А., Могилнер, М., и А. Семёнов (ред.)(2004) *Новая импер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Казань: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ционализма и Империи.
Глущенко, Евгений(2001) *Герои Империи*: портреты российских колони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М.: XXI век-Согласие.
Горшенина, Светлана(2007) “Крупнейшие проекты колониальных архивов России утопичность тотальной Туркестаники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Константина Петровича фон Кауфмана,” *Ab Imperio*, № 3, С. 291-354.
Зияев, Х. З. и Ю. Ф. Буряков(ред.)(1988) *История Ташкента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победы февральской буржуаз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Ташкент: Изд-во «фан» УзССР.
Лежан, Г.(1867) “Русски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Записки для чтения*, № 10/11, СПб.
Лотман Ю.(1984) “Символика Петербурга и проблемы семиотики города,” *Труды по знаковым системам*, Т. 18, Тарту и СПб: Метафизика Петербурга, С. 30-44.
Нильсен, В. А. и В. Н. Манакова(1974) *Архитектурный декор памятников Узбекистана*, Ленинград: Стройиздат.
Соколов, Юри(1965) *Ташкент, Ташкенцы, Росс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Тошкент 2200(2009),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он.
Хидоятов, Г. А. и В. А. Костецкий(2003)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Узинкомцентр.

Baron, Nick(2008) “New Spatial Histories of 20th-Century Russia and the Soviet Union: Exploring the Terrain,”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9(2) (Spring), pp. 433-447.

Celik, Zeyn(1997) *Urban Forms and Colonial Confrontations: Algiers under French Ru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erasimov, I.(2008) “Gardening empire as "Civiluzing process",” *Ab Imperio*, № 3, pp. 11-17.

Home, Robert(1997) *Of Planting and Planning: The making of British colonial cities*, London: E & FN Spon.

Hopkins, Anthony G.(1999) “Back to the Future: From National History to Imperial History,” *Past and Present*, Vol. 164, pp. 203-204.

Howe, Stephen(ed.)(2010) *The New Imperial Histories Readers*, New York: Routledge.

Khalid, Adeeb(1998)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sm in Central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osmarski, Artyom(2011) “Grandeur and Decay of the 'Soviet Byzantium' Spaces, Peoples and Memories of Tashkent, Uzbekistan,” in Tsypylma Darieva, Wolfgang Kaschuba and Melanie Krebs(eds.), *Urban Spaces after Socialism: Ethnographies of Public Places in Eurasian Cities*, Frankfurt/ Main: Campus Verlag, pp. 33-50.

Legg, Stephen(2007) *Spaces of Colonialism: Delhi's Urban Governmentalities*, Oxford: Blackwell.

Low, Setha(1996) “The Anthropology of Cities: Imagining and Theorizing the C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5, pp. 383-409.

MacKenzie, David(1974) *The Lion of Tashkent: the career of General M. G. Cherniaev*,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Morrison, Alexander(2006) “Russian Rule in Turkestan and the Example of British India,” *Slavonic & East European Review* 84(4) (October).

_____(2008) *Russian, Rule in Samarkand, 1868-1910: A Comparison with British India*,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Rotenberg, Robert and Gary McDonogh(1993) *The Cultural Meaning of Urban Space*, Westport, CT: Bergin and Garvey.

Sahadeo, Jeff(2005) “Epidemic and Empire: Ethnicity, Class, and "Civilization" in the 1892 Tashkent Cholera Riot,” *Slavic Review*, Vol. 64, № 1, pp. 117-139.

_____(2007)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Schimmelpenninck, David van der Oye(2009) “Vasilij V. Vereshchagin's Canvases of Central Asian Conquest,” *Cahiers d’Asie centrale*, 17(18), pp. 179-209.

_____(2010) *Russian Orientalis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http://www.orient-tracking.com/Hystory/Tashkent.htm(검색일: 2012.10.20).

Abstract

The Spatial Structure of Tashkent and Representation of Power of Russian Empire in the late of Nineteenth Century

Ki, Kye-Hyeong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spatial structure of Tashkent as a colonial city and the capital of Turkestan Government-Generalship of the Russian Empire. Capital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cities because they function as a special site for the representation political power. After having been conquered by force, Tashkent became the capital city of Turkestan Government-Generalship and a political, administrative, military, and cultural center for colonial rule of the Russian Empire in Central Asia. Tsarist officials tried to transplant St. Petersburg, the imperial capital, into Tashkent. The Russian government constructed a modern and new city on the right side of the old city of the ancient Silk Road, instead of entering the urban space of old civilization. In doing so, the Russian government separated the new city from the old one.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not only the characters of Tashkent's spatial structure itself but also how its urban space was reconstituted by the Russian colonial rule, in other words, the properties of Turkestan policy of the Russian Empir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modern' urban space constructed by Russian Empire in Tashkent, in fact was not only 'pre-modern' space projected on the aspirations, fear, ignorance of ruling powers in the colony, but also 'paradoxical' space based on the isolation of the indigenous people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2. 10. 25
논문심사일: 2012. 11. 1 ~ 11. 28
심사완료일: 2012. 11. 30